

탕자의 비유

핵심 구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느니라.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니라.”

누가복음 15:24

선별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5:11-24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뜻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모든 소유물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질 무렵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그는 굶주리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5:11-14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많은 것을 받은 막내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받은 모든 것을 “ ” 방탕한 생활로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특권을 버린 그는 죄에 빠지고 “ ”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1; 로마서 3:23

방탕한 삶을 깨달은 막내아들은 후에 겸손히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저를 깡패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18-20

길 잃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쁘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떠난 동안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웅장하게 보여 주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인류의 종족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듣는 이들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15:21,22

이 비유에서 또 다른 교훈은,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큰아들은 구약의 신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인 이스라엘을, 작은아들은 신성한 법에 대해 대체로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성향을 보인 나머지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은 너희에게 황폐하게 남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23:38

그러나 방탕한 아들이 그러하듯,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완전히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이가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불경건에서 돌이키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니 곧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셨으니 이는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은 찾기 어려우니라.” 로마서 11:26-33